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최선의 양육방법인가? 서구와 아시아 문화 및 사회적 행동에 따른 재고*

Is Authoritative Parenting the Best for Children's Social Adjustment?:
Reconsideration Based on Western and Asian Cultures, and Social Behaviors*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천희영

Department of Child Studies, Kos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un, Hui 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부모역할 수행 |
| II. 용어의 정의 및 문헌조사의 범위 | V. 논의 및 제언 |
| III. 문화 맥락과 부모역할 수행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importance of authoritative parenting for children's social adjustment. From the review it was suggested that the importance of authoritative parenting might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ultural contexts, which are Western and Asian cultures, and aggressive and social withdrawal behaviors. From the comparative cultural viewpoint, authoritarian parenting is not considered negatively by Asian parents, comparing with Western parents. Therefore the assumption that authoritative parenting has universal positiveness and authoritarian parenting has universal negativeness should be reconsidered. Regardless of cultures,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was related to the authoritarian parenting positively. But, in Asia, especially in China, the social withdrawal did not show at least negative relation with authoritative parenting. And it was reported that the authoritarian parenting could contribute to the change of inhibited behavior and enhancing the social adjustment. In addition, som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future researches about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and child rearing practices. Though this literature review was not exclusively based on the empirical studies, it would be valuable for reconsidering the perspective of Korean developmentalists interested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ren's development in Korean culture.

* 본 연구의 주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Iowa State University의 Joan E. Herwig 박사님께 지면을 통해서 감사 드립니다.

I. 서론

지난 20년간 가족내 과정과 양육 관련 연구들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가족생활에서의 인지적·행동적 과정들, 그리고 가족환경의 특성들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해 왔다. 인간발달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도 동료집단과 함께 가족 내에서의 아동 경험을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Ladd, 1992). 부모의 양육에 의한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능력의 발달을 위한 맥락으로 기능한다(예를 들면, Chao, 1994; Chen, Dong, & Zhou, 1997; Darling & Steinberg, 1993). 또 사회정서적 발달영역에서는 억제성과 같은 기질적 특성의 불연속성('lawful discontinuity': Belsky & Pensky, 1988)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Park, Belsky, Putman, & Cmic, 1997에서 재인용).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 연구들이 부모와 자녀간의 행동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아동의 사회인지적 발달을 강조하는 경향에 따라 최근에는 부모인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부모행동의 정보처리 모델에 의해, 양육행동을 중재하는 부모의 신념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안내하며 그 상호작용의 질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 성취 또는 공격성이나 사회적 철회와 같은 문제가 가능성이 있는 행동의 발달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rling & Steinberg, 1993; Goodnow, 1988; Mills & Rubin, 1990, 1992, 1993b; Schneider, Attili, Vermigli, & Younger, 1997). Grusec, Rudy 그리고 Martini(1997)는 발달의 방향과 조건에 관한 사고를 부모인지라고 보고 아동의 사회화 책략과 그 결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하였다. 신념과 행동의 관계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지지되어 부모의 신념이 자녀에 대한 행동의 근원이 된다고 추정되었다(예를 들면, McGillicuddy-DeLisi, 1992; Miller, 1988; Sigel, 1985, 1992). 따라서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발달, 적응의 관계 논의에서 부모역할 수행(parenting)의 개념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 자체 뿐 아니라 자녀와

양육에 대한 지식·태도·가치·책략·감정 등의 신념 또는 인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기능간 관계의 본질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예를 들면, Dodge, 1990; Lytton, 1990). 부모의 행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이와 반대로 아동의 특성과 행동이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부모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아동의 행동간 상호적인 관계를 주장하면서도,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기능은 어떤 발달단계에서는 각각 조작되는 독립적인 조직들이므로 서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예를 들면, Vuchinich, Bank, & Patterson, 1992)). 그러나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의 적응간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든, 공통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양육 차원으로 권위적 양육(Baumrind, 1966, 1967, 1968, 1970, 1978)이 일관되게 주의를 받아왔다(Darling & Steinberg, 1993). 사회적 책임감·독립성 그리고 성취지향과 같은 사회적인 능력을 기르는데는 권위적인 양육(Baumrind, 1978) 또는 자녀의 요구·전망에 대해 민감하며 반응적인 양육(Dumas, LaFreniere, & Serketich, 1995; Mills & Rubin, 1993a)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은 아동의 안정감, 신뢰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지향성의 발달을 저해한다. 부모의 적의와 무관심은 공격성과 같은 비능력적인 행동 및 다른 적응의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Russell & Russell, 1996).

그러나 생태학적으로 볼 때 가족체계 속의 부모-자녀 관계는 더 큰 맥락인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문화 맥락은 신체적·사회적 환경을 표상하고 해석하는 길잡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역할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Triandis, 1995). Murphy(1992)에 의하면 자녀를 사회화하는 체계의 하나는 발달에 대한 더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신념을 포함하는 거시체계(macrosys-

temic)이며, 이는 부모가 속한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표상이다. 또 LeVine(1988)은 어느 사회든 부모는 그들의 역할에서 공통된 목표를 갖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양육책략은 문화 집단에 따라 다르며 인간 사회에서 자녀양육의 패턴은 일률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모행동의 역할은 상호 인식되어왔으나(Harkness & Super, 1995; Whitning & Edward, 1988),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의 하나로 가장 잘 묘사되는 현대 미국 사회(Carter & Middlemiss, 1992)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 집단들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유럽계 미국인들의 문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문화변용(acculturation)의 과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 맥락에 따라 양육방식과 실제가 왜, 어떻게 다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예로 서구 사회에 근거한 권위적, 권위주의적 양육실체와 같은, 즉 중류층 서구 문화 규준에 근거한 양육행동의 개념화가 다른 문화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가에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와 아시아계 문화의 대조적인 특징,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Triandis, 1995)에 따른 아시아계 부모의 양육특성이 재조명되고 있다(Chen, Dong, & Zhou, 1997; Chen, Rubin, & Li, 1997; Super & Harkness, 1986). Grusec과 그의 동료들(1997)은 앵글로-유럽계 또는 서구의 문화 맥락 내에서 행해진 부모역할 수행 인지에 관한 연구들의 가정과는 달리 다른 문화에서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 수행 패턴이 서구사회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지되고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이 항상 가장 바람직한 책략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Shin(1996)은 한국계 미국인민 가족의 부모가 보이는 통제적 양육패턴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근거한 부모통제의 개념이 Baumrind의 통제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부모역할 수행과 아동의 적응적 발달간의 관계가 발달의 특정 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도 발견된다. 특히 아동의 학교성취(Chen, Dong, & Zhou, 1997; Chen, Rubin, & Li, 1997; Dorn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 Fraleigh, 1987; Steinberg et al., 1991)와 함께 사회적 철회행동 영역에서 전통적인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Arcus, Gardner, & Anderson, 1992; Kagan, 1994; Park et al., 1997). 이들을 아동의 사회적 행동 영역 중 많이 다루어져 온 공격적 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들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같은 주장에 대한 재평가가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적·행동적 특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이 아동의 적응적 발달 측면에서 서구와 아시아와 같은 대조적인 문화에 따라, 그리고 공격적 행동과 사회적 철회 같은 사회적 행동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달리 평가될 필요성을 보여준 관련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Baumrind의 양육방식 개념화에 근거한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아동의 발달 결과에 대한 재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용어의 정의 및 문헌조사의 범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사회적인 형성(social mold) 과정을 통한 사회화를 의미한다(Hartup, 1978, 대한가정학회, 1990에서 재인용). 즉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신념, 행동, 가치들을 아동이 획득함으로써 주위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게됨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이 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아동이 대인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행동과 사회적 철회 행동이라는 두가지 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과 '권위주의적 부모역할 수행'은 Baumrind(1967, 1968)의 개념화와 일관되게 정의되었다.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authoritative

parenting)은 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권위를 행사하여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인지적·행동적 특성을 의미한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의 주의 요구에 반응적이며, 자녀의 발달 한계나 자아통합감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고려하면서 성숙된, 독립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들은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자녀의 발달적 능력, 사고와 감정, 시각 등을 고려하여 통제를 하며, 자신들의 훈육과 통제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자녀에게 설명해 준다.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 수행' (authoritarian parenting)은 부모가 이미 설정한 절대적인 행동 준거에 따라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형성시키고, 통제하며, 평가하는 인지적·행동적 부모역할 수행의 특성을 의미한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자녀에게 강조하며, 전통적 사회조직과 서열의 유지를 고집한다. 따라서 자녀의 행동이나 신념이 부모의 그것과 같음을 일으키면 자녀의 자아의지를 억제시키기 위해 처벌적이고 강력한 훈육방법을 사용한다. 부모역할 수행 과정에서 통제의 수준은 높게, 반면 온정의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부모역할 수행 유형의 명칭이 권위적 또는 권위주의적이라고 붙여지지 않았더라도, 그 특성이 본 연구에서의 정의와 일치하는 경우(예를 들면, 수용적 태도, 통제적 태도 등) 권위적 또는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Baumrind의 부모역할 수행 개념화에 근거한 양육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하되, 서구와 아시아라는 문화 변인, 그리고 공격적 행동과 사회적 철회 행동이라는 사회적 행동 변인을 매개변인 또는 관련 변인으로 포함시켜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의 문헌조사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의 긍정적 역할보다는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밝혀둔다.

III. 문화 맥락과 부모역할 수행

지난 25년간 Baumrind의 양육형태 개념화에 근거한 연구들은 미국내 지배적인 문화에서 아동의 성공적인 사회화를 위한 부모역할 수행의 유형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은 정서적 지지, 높은 기대(standard), 적절한 자율성 보장, 그리고 명확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는 부모 속성의 집합체(constellation)로서, 사회와 개인의 요구 및 책임간의 균형을 위한 도구적 능력을 아동과 청소년이 발달시키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왔다(Baumrind, 1989, 1991, Darling & Steinberg, 1993에서 재인용). 그래서 권위적인 부모는 더 능력있는(예를 들면, 우호적, 성취지향적, 협동적인) 자녀를, 반면에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자신이 없고 불만이 많은 자녀를 갖는 경향이 있다(Baumrind, 1967, 1970). Rhoner(1986)는 부모의 온정과 수용이 자녀의 적응적·부적응적 사회행동에 대해 범문화적으로 공통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부모의 온정은 아동이 그들의 사회적·비사회적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사회적·정서적 자원을 구성해 주며, 친사회적 행동과 동료집단 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예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예를 들면, Booth, Rose-Krasnor, Mckinnon, & Rubin, 1994; Dekovic & Jassens, 1992; Hart et al, 1992; Putallaz, 1987).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하는 문화 맥락에서 문화집단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방식은 집단 구성원간에 공유되는 신념·가치·태도·역할·규범 등으로 전수, 표상화되므로, 문화에 따라 부모역할 수행은 차이가 있다(Triandis, 1995). 부모역할 수행의 독특한 문화 차이를 알기위해 Julian, McKenry 그리고 McKelvey(1994)는 미국 내의 소수 민족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역할 수행의 태도, 행동, 개입 등을 조사하였다. 유럽계 중류층 부모의 양육방식은 권위적인 방식으로 특징지어지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부모는 엄격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성취와 친족에의 의무감을 강조하였다. 남미계 미국인 부모들은 자녀양육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는 전통을 나타냈다. 중국·일본·한국·베트남을 포함하는

아시아계의 미국인 부모는 동조, 응집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서구 문화의 부모들보다 더 통제적이며 체벌을 많이 사용하고 더 성취지향적인 양육패턴을 보였다. 물론 미국에 이민 온 가족들은 문화변용의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아시아적 문화 가치가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인 이민가족 부모는 자녀의 의사표현을 허용하고 의사결정에서 자녀를 존중한다는 결과(Storm, Daniels, & Park, 1986)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부모통제와 관련한 Lin과 Fu(1990)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인 어머니, 중국계 이민가족의 어머니,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의 순으로 통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계 이민가족에서의 미국적 가치체계로의 적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riandis(1995)는 문화간의 주요 차이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에 있다고 하였다. 집단주의는 집단 구성원간의 결속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연결된 사회 패턴이라고 정의된다. 의무와 규범은 그들 개인의 목적보다 우선한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의존하고 동조하도록 사회화된다. 반면에 개인주의는 자신의 필요, 권리, 그리고 사생활을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발견되는 사회화 패턴이다. 그러므로 자기 충족과 자기 신뢰를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독립적이고 자기 의존적으로 사회화된다. 또 아동은 부모로부터 자기신뢰적이며 정서적으로 더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창의적으로 되도록 가르쳐진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즉 아시아 문화, 남아메리카 문화)에서 부모들은 복종과 동조를 강조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성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가치가 부여되고 격려되므로 부모의 통제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Triandis(1995)는 부모의 통제가 자녀를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화시키려는 부모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으로 이해되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 권위주의적 부모 통제는 지배적 또는 과다통제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한편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부모역할 수행의 인지

(parenting cognition)를 논의한 Grusec과 그의 동료들(1997)은 비서구 문화에서의 권위주의적 실체가 서구 문화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항상 부정적으로 개념화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집단주의적 아시아 문화에서 권위주의적 실체는 부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강력한 방법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즉 아동 또는 가족의 조화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아동의 유익을 위한' 권위주의는 '부모의 유익을 위한' 권위주의와 네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비서구 문화에서의 권위주의적 기술은 서구 문화에서만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지않다는 것이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부모의 위협적인 양육 이면에는 아동이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라는 지각이 깔려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부모의 자녀는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해당 아동에 비해 덜 부정적으로 자아관을 형성하며, 부모의 긍정적인 기대가 충족되도록 행동한다고 보았다. 아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않는다는 점은 나아가 자녀의 애매한 행동을 고의적인 불복종으로 덜 해석하도록 하였다. 이에 서구 문화에서와 같이 부모-자녀간에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점증되기보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의 가치를 내재화하려는 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차이점으로 보았다. 셋째,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권위주의적 실체는 부정적이고 무의식적인 도식으로부터 연유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채택된 책략이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책략은 Chao(1994)의 연구에서처럼 가족의 조화와 유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통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권위주의적인 부모와 같은 정서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 부모는 자녀와 더욱 분리되고 그들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은 자녀가 더욱 비판적으로 되도록 하여, 그 결과 부모-자녀간에 위협적인 상호작용이 점증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었다. 그러나 자녀의 유익을 위한 권위주의적

부모역할 수행에 의해 자녀는 부모의 더욱 긍정적인 정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고(Bartz & LeVine, 1978, Grusec et al., 1997에서 재인용), 권위적 부모의 자녀와 유사하게 부모가 강조하는 가치들을 수용하도록 더욱 동기화 될 수 있었다. 이에 덧붙여 Grusec과 그의 동료들(1997)은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 전략과 관련하여,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 자율성일 때 가장 효과적인 사회화의 방법은 권위적 양육전략이지만 그 목표가 상호결속(interconnectedness)일 때는 아동에게서 권위적 실제 교유의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필연적으로 보여주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보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아동의 자아감에서 핵심을 차지하므로 굳이 친사회적인 가치의 수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리적 대화를 통해 확신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집단 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격려하거나 기대하지 않으므로 논리적, 이성적 양육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상호의존성이 증진되고 개인의 지속적인 속성이 덜 강조될 때,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개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재화된 규범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보다 상황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온 한국 문화에서 유교사상은 각 개인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족에 기여하도록 격려하며, 인간관계가 전통 한국 문화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었다(Choi, Kim, & Choi, 1993; 김지신과 박성연, 1997). Choi와 그의 동료들(1993)은 '정', '우리' 등의 개념을 예로 들었다. 부모-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정서적 애착이 모-자 관계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자 관계는 자녀에게 복종, 존경을 기대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oi, 1994). 이러한 '엄부자모'의 특성은 중국, 타이완에서 조사된 중국 문화에서의 부모지각(Bendt, Cheung, Lau, Hau, & Lew, 1993), 그리고 중국 부모들이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복종을 강조한다는 경

향(Chen, Dong, & Zhou, 1997)과 공통된 것이었다. 또 Shin(1993)은 자녀 양육의 신념에서 동아시아(한국, 중국, 타이완)인 어머니와 미국인 어머니간에 유의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시아계 어머니들은 미국인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의 행동을 지도할 때 더 통제적이며 엄격한 반면, 미국계 어머니들은 반응성, 양육성, 비제한적 태도 그리고 규칙의 적용 일관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이 전통적인 문화 가치를 획득하도록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아시아 문화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패턴은 통제적 또는 거부적 양육형태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Rhoner와 Pettengill(1985)의 연구는 자녀들에게 통제적이라고 지각되는 부모들이 또한 더 온정적이고 덜 무관심한 것으로 지각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문화에서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엄격한 부모의 통제는 권위주의적 역할 구조내에서 부모의 거부와 적대감에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문화에서 부모의 통제와 엄격성은 자녀의 학업과 사회적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여진다.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자녀들에게 가족의 화합을 강조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Chao(1994)는 유아원 시기의 아동을 가진 중국계 미국이민 어머니와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를 양육방식의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 아동은 그 부모가 권위주의적 또는 통제적 부모로 특징 지워지더라도 미국 아동보다 더 나은 수행을 보였다. 또한 중국인 어머니들은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들보다 부모 통제와 훈육개념의 측정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이는 유교적인 중국 문화의 가치에 비추어 해석될 수 있었다. 즉 부모의 통제는 아동을 지배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기보다는 한 가족 내에서의 조화를 강조하며, 보호와 애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Chao(1994)는 가족의 결속과 집단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를 자극하도록 돕는 훈육개념 및 '가족에 근거한' 부모통제(가족에 대한 관심과 존중, 가족에의 참여, 학교에의 간

접적인 부모참여)를 아시아적인 문화규범을 반영하는 부모통제의 대안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안적인 부모통제 개념은 혼육과 '가족에 근거한' 부모통제의 측정치로 대변되었다. Chao(1995, Shin, 1996에서 재인용)는 5-9세 자녀를 가진 동아시아(중국, 일본, 한국)인 부모와 유럽계 미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권위, 권위주의적인 통제, 부모의 참여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인 부모는 전통적인 부모통제 개념에서 유럽계 미국인 부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아시아인 부모는 대안적인 부모통제를 측정하는 혼육척도, 가족에 대한 관심과 존중 척도, 부모의 간접적인 학교참여 문항들에서도 역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부모의 통제개념은 동아시아인 문화에서 상이하게 지각됨을 보여주었다. 즉, 유교적 가치와 자녀의 학업 기술을 자극하기 위한 대안적인 책략들이 중요시되고, 그것들이 양육방식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서구의 전형적인 양육신념과 부모통제의 개념, 아시아적 가치에 근거한 대안적인 부모통제 개념을 함께 적용하여, Shin(1996)은 한국계 미국 이민 가족 어머니의 양육패턴과 그들의 2-5세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계 어머니가 보인 서구적 부모통제 경향의 일부가 아시아적 가치에 근거한 부모통제의 경향과 유의하게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게 애정과 주의를 많이 주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체벌이나 보상의 철회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들은 또한 자녀가 가족을 돌보고 존중해야 한다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혼육이데올로기의 특성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은 사랑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를 지도(govern)하기 위해서도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반응하였다. 이는 아시아적 가치에 근거한 부모통제가 갖는 서구적인 권위적 양육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며, 서구적인 부모통제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비록 설명변량은 적지만, 어머니가 자녀에게 갖는 '가족에 대한 관심과 존중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한국계 부모의 양육패턴이 유교적 관점에서의 가족중심적 가치관에 기초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Grusec과 그의 동료들(1997)의 지적과 같이, 권위주의적 책략의 보편적인 부정성과 권위적 책략의 보편적인 긍정성에 관한 가정은 옳지 않거나, 적어도 권위주의적 및 권위적 패턴은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을 함께 갖는 다면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전형적인 서구식 부모 양육방법 즉 권위적인 척도 또는 부모통제 척도로 측정되는 양육방법을 아시아계 부모들에게 적용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IV.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부모역할 수행

서구의 많은 연구들(예를 들면, Masten et al., 1995; Rubin, Chen, & Hymel, 1993; Schneider et al., 1997)에서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동료집단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그들의 사회적 행동, 즉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공격성, 사회 철회적 행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되어 왔다(Chen, Dong, & Zhou, 1997).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이 아동의 적응을 돕는 중요 사회화 요인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예를 들면, Rohner, 1986). 다시 말해서 민감하고 온정적인 어머니는 자녀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규범을 학습하도록 도우며 동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가도록 자녀를 지지하고 도움을 제공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판응적이며 거부적인 어머니는 자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녀 양육에서 강압적인(coercive) 책략을 사용한다. 그 결과, 아동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 분노와 적의적인 태도를 발달시키게 되어 동료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적의적,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드러내게 된다(예를 들면, Putallaz & Heflin, 1990; Mills & Rubin,

1993a).

이러한 관계를 공격적 행동과 사회 철회적 행동의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세부터 10세까지의 중국 아동 162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수용과 사회 및 학교 적응간의 관계를 4년간 종단적으로 연구한 Chen, Rubin 그리고 Li(1997)는 공격성과 동료의 거부가 어머니의 수용과 부적으로 상관되어 있어 어머니의 수용이 자녀의 공격적 행동과 4년 후 사회적 어려움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민감하고 온정적인 어머니의 자녀인 경우 거부적인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4년 후 그들의 행동적, 사회적 문제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특히 주목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수용이 공격적이고 거부된 아동에서의 차후 행동적, 사회적 문제의 발달을 완충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또 서구의 문헌들에서 보고된 긍정적인 부모양육 실제의 보호적 기능(예를 들면, Rutter, 1987)과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Chen, Dong, 그리고 Zhou(1997) 역시 권위주의적 양육이 공격성과 긍정적으로 연관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수용적 부모양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 철회적인 아동의 어머니는 사회 철회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일반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자녀의 비사회적인 행동에 대해 통제적인 책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아동이나 공격적인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서 자녀의 비기술적인 사회행동에 대해 덜 인내하고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였다(Mills & Rubin, 1993a; Rubin & Mills, 1990; Schneider et al., 1997). LaFreniere와 Dumas(1992)는 어머니와 아동이 문제해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불안-철회적인 아동의 어머니는 부정적인 상호교류와 지나친 통제의 빈도가 높고,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덧붙여 서구 사회에서 행해진 연구에서 사회적 철회가 아동의 사회 부적응적 발달과 관련된다고

경험적으로 보고되었다(예를 들면, Boivin & Hymel, 1997; Hymel, Bowker, & Woody, 1993; Rubin, Hymel, & Mills, 1989; Rubin & Asendorpf, 1993). 물론 사회적 철회 행동과 아동 적응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적 철회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그 하위 유형이 세분화되어, 소극적 철회(Asendorpf, 1993), 또는 비사회적 유형(Harrist, Zaia, Bates, Dodge, & Pettit, 1997)과 같은 사회적 철회가 반드시 아동의 추후 위기 상태를 예언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사된 바 있다(천희영, 1997). 또한 일부 비억제적인 아동은 공격적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조차 비억제적 특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적응적 발달을 초래할 것이라고 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Park et al., 1997).

그러나 서구 사회와 대조적으로 중국에서, 아동은 조심스럽게 행동적으로 억제되며, 자제하도록 격려받는다(Chen, Dong, & Zhou, 1997; Chen, Rubin, & Li, 1997). 수줍음-사회적 억제는 사회적 능력을 반영하며 동료 수용과 정적으로 연관된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Chen et al., 1995; Chen et al., 1992). 실제로 Chen, Dong, 그리고 Zhou(1997)는 평균연령이 7세 11개월인 중국 아동의 사회 및 학교에서의 수행과 권위적·권위주의적 양육실제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을 보일수록 자녀의 수줍음-사회적 억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Chen, Rubin, 그리고 Li(1997)에 의한 종단적 연구는 전자와는 달리 어머니의 수용이 자녀의 수줍음-민감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자의 연구는 연구대상 표집이 중국 도시지역의 학령기 아동 전집에 대한 대표성이 높다는 점, 후자의 연구는 대상 아동 부모의 73%가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 연구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신뢰롭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을 채택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철회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아동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지신과 박성연(1997)은

아동의 수줍음이 클수록 그들의 어머니는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지만, 아동의 수줍음과 권위주의적 통제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아동의 긍정적 사회행동인 친사회적 행동·통솔력·도덕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 사회행동인 공격 및 방해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똑같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분류되었던 수줍음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승원과 도현심(1997) 역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수줍음은 아버지의 온정과 어머니의 사회성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영유아기에서의 사회적 철회 또는 억제성이 안정적인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민감성이 자녀의 정서발달을 도우며 억제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예를 들면, Engfer, 1993) 외에 이와 상반된 결과도 발견된다. 이론적으로 Kagan(1994)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아동의 성마름(imitability)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은 아동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 발달을 저해하고, 그럼으로써 억제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확고한(firm) 통제와 상황 제한은 대처능력을 증진시켜 억제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었다. 최근의 소수 연구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Arcus, Gardner, 그리고 Anderson(1992)은 1세 때 반응성이 높은 자녀의 초조함(fretting)과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간접적으로 상황을 제한했던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억제성이 실제로 증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반응성이 높은 자녀에 대해 더욱 직접적인 상황 제한 책략을 사용하고, 초조함과 울음에 덜 반응했던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두려워하고 억제되는 행동이 발달하는 것을 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그의 동료들(1997)은 3세 때의 억제성에 대한 선행 부모역할 수행 요인을 확인한 결과 Arcus와 그의 동료들(1992)의 연구결과를 지지할 수 있었다. 즉 아동이 2세와 3세 때 어머니가 더 강요적이며, 아버지가 2세 자녀에 대해 덜 민감하고 다정다감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3세 자녀에게 더 강요적

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아동은 3세 때 덜 억제적 또는 비억제적으로 변화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유아의 스트레스와 신기한 것에 대한 무능력을 수용하고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억제성의 발달을 도왔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부정적이고 강요적인 통제 행동은 자녀에게 그 행동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억제성이 변화되도록 요구했다고 볼 수 있었다.

유사하게, 4세부터 6세까지의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차이를 연구했던 천희영(1993)은 기질 유형과 양육태도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별히 사회적 철회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 즉 활동성과 반응성이 낮은 '소극적 조절' 기질 유형의 아동은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태도를 보이기보다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다른 기질 유형의 아동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높은 사회적 협동 능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사회적 표현 반응과 관련되는 활동성과 반응성을 자녀에게 더 자극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사회적 행동과 권위적 양육과의 관계를 공격적 및 사회 철회적 행동별로 살펴본 바, 공격적 행동의 발달에 대한 권위적 양육의 역할은 서구와 아시아 문화에서 일관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 철회적 행동의 경우, 사회 철회적 행동에 대한 문화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권위적 양육과의 관계는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억제적 경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 수행이 주목되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응적 발달을 위한 부모의 권위적 양육의 중요성이 서구와 아시아 문화의 맥락, 그리고 공격적 행동과 사회 철회적 행동이라는 사회적 행동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지를 문헌조사하였다. 그럼으로써 지난 25년간 Baumrind에 의한 전형적인 양육방식 개념화에 근거한 권위

적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그에 따른 아동 발달의 결과를 재고하도록 자극하고자 하였다.

서구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가치 지향으로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적·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의 차원에서 아시아의 부모양육 방식은 서구 문화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통제적 양육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민족·단일문화 국가에서는 민족집단 또는 문화에 따른 양육 특성의 차이가 미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아 문화의 맥락에 비추어 통제적 양육의 의미는 달리 해석되어야 하며, 가족에 근거한 부모통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경험적 연구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서구적인 Baumrind의 개념에 근거한 권위적·권위주의적 양육이 문화 맥락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개념에 근거한 권위적·권위주의적 양육 유형의 각 정의에 내재된 부모역할 수행의 인지적·행동적 특성이 서구와 아시아 문화맥락에 비추어 달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 부모역할 수행에서 자녀에 대한 통제와 복종의 요구 특성은, 서구 문화에서는 지배적 또는 과다통제로, 아시아 문화에서는 자녀를 사회화시키기 위한 부모의 노력 내지 부모의 사랑으로(Triandis, 1995) 해석된다. 또 아시아 문화에서의 자녀 통제는 가족집단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기대에 따른 '가족에 근거한' 통제(Chao, 1994)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각 문화에서 권위적 혹은 권위주의적 양육이 어떤 사회화의 목적에 따라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Baumrind(1971) 역시, 권위적 양육태도가 모든 문화맥락에서 공통적으로 아동을 사회화하는데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사회화의 목적에 따라 똑같은 맥락 내에서도 양육실체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Darling & Steinberg, 1993). Grusec과 그의 동료들(1997) 또한 비교문화적 전망에서 볼 때, 부모가 희망하는 것을 자녀가 성취하도록

록 하기 위한 부모의 행동 적절성은 양육의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율성이 궁극적 목적이 되는 서구사회에서는 권위적이며 평등적 양육실체가 목표에 가장 적절하나, 인간의 기능을 위한 긍정적 기여가 권위적 양육실체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아시아 문화에서는 상호성 특히 가족집단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기대에 의해 '가족에 근거한' 통제적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므로, 이는 결코 서구 사회에서의 권위주의적 양육의 개념 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이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부모 양육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우리 문화의 독특성에 비추어 부모양육 특성의 타당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왜 미국의 어머니들에 비해 더 권위주의적인가, 그렇다면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에 비해 적응력이 낮을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이같은 문화 맥락적 차이를 고려한 새로운 시각에서 제기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아시아, 서구 문화에 따른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의 중요성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 문화에서도 부모의 수용이 자녀의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져 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예를 들면, Wu & Tseng, 1985, Chen, Rubin, & Li, 1997에서 재인용). 그리고 권위적 양육방식이 사회 및 학교 적응과 긍정적으로, 적응의 문제와는 부정적으로 연관된다는 최근의 보고들(Chen, Dong, & Zhou, 1997; Chen, Rubin, & Li, 1997)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 부모의 수용은 서구적 가치에 근거한 권위적 양육방식을 가리키기보다 자녀에 대한 온정과 같은 권위적 양육의 일부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중국 사회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힘입어 서구 문화를 접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문화 변용의 측면에서, 중국과 같은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부모역할 수행의 특성 변화에 관해 추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자녀가 속한 문화의 변화에 따른 부모역할

수행의 특성 변화는 이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한국계 미국 이민가족을 대상으로 한 Shin(1996)의 연구에서, 자녀의 행동 통제를 위해 체벌을 사용하려는 어머니의 의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그들이 이미 서구적 문화관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문화의 급속한 서구화에 따른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의 변화는 최근의 두 연구에서 시사되었다. 정옥분 등의 연구(1997)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대표적인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이 자부자모(慈父慈母)의 유형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형인 엄부자모의 유형을 벗어남을 보고하였다. 김지신과 박성연(1997)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전통적인 가치관, 즉 가족중심주의적 집단주의와 예의범절 교육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인격적 존중보다는 집단의 일원으로 의무와 순종을 중히 여기는 권위주의적 양육의 면과 애정적·수용적인 양육의 면이 동시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가 겪는 가치관의 혼란 상태에서, 부모의 전통적인 자녀양육관의 변화에 따른 부모역할 수행의 변화 가능성을 다루는 경험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그 변화의 결과로 점차 더 서구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면, 한국에 이어 급속히 서구 문화를 접하는 문화권에서의 부모역할 수행 특성과 서구 사회에서의 부모역할 수행 특성간을 잇는 연속선 상에서 우리나라 부모의 역할수행 특성이 중간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집단주의적인 문화 배경을 가진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어머니의 양육실제와 아동의 수줍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비록 그 측정방법과 대상 연령에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을 채택할수록 아동은 수줍음·사회적 역제를 낮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Dong, & Zhou, 1997). 한국에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양식은 아동의 수줍음과 유의한 상관이 없으나(김지신과 박성연, 1997; 정승원과 도현심,

1997), 서구 문화에서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일수록 아동의 수줍음이 큰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 Mills & Rubin, 1993a 등).

그러면, 지금과 같이 우리 문화의 서구화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 바람직한 양육방식 유형은 여전히 아시아 문화의 시각에서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라고 제안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문화의 서구화는 집단주의적 사회 가치를 개인주의적 가치로, 사회화의 목표를 집단내지 가족의 성취와 실현에서 개인의 성취와 실현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이에 서구적인 개념의 권위적 양육방식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양육 유형으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문화와 전통적인 양육방식이 갖는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표리관계와 같으므로 단점만 주목해서 우리 것의 장점마저도 버려서는 안된다는 유가효(1995)의 지적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 양육방식은 자녀에게 '우리'를 알게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도리와 분수를 가르치며, 자녀를 한몸처럼 사랑하면서도 이기적으로 되지않도록 엄하게 예의와 법도를 가르쳐 왔다.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현대사회에서 살려 서구 문화와 통합되도록 할 때, 미래 사회에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즉 문화와 사회적 행동에 따라 권위적 양육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달리 보고한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기 위한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먼저 각 문화의 성역할 정형성에 따라 부모의 신념이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Schneider et al., 1997),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과 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Schneider와 그의 동료들(1997)은 앵글로색슨과 이태리 문화간 비교연구에서, 그리고 Miller와 Rubin(1990, 1992, 1993a)은 캐나다 문화권의 연구에서, 각각 아동의 성에 따른 공격적·사회 철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Chen, Rubin, 그리고 Li(1997)는 중국 어머니의 수용

과 아동 관련 변인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같은 비일관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동의 성별인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는 양육에 관련된 부모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크게 가족내 변인과 가족외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Darling & Steinberg, 1993; Okagaki & Divecha, 1993, Shin, 1996에서 재인용). 가족외 변인에는 부모 자신의 문화 전통, 직업환경, 사회망, 사회경제적 지위(SES)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문화 전통은 문화변인에, 나머지는 SE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때, 문화변인이 부모의 SES 변인과 동시에 다루어진 연구는 Shin(1996)의 연구와는 발견할 수 없었다. Mills와 Rubin(1990)은 부모 신념에서의 개인차는 그들의 사회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낮은 직업지위가 더 부정적인 정서반응 및 더 처벌적인 책략의 선택에 연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Mills & Rubin, 1993b)에서 그들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의 경험 즉 2년의 연구기간 동안 낮은 경제 지위가 지속될 때 사회적 지원을 적게 받은 어머니는 자녀의 공격성을 내적 속성으로 귀인하며, 사회 철회적 행동을 다루기 위해서 권력주장적인 책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Shin(1996)의 연구에서 한국계 미국 이민가족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하는 중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력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의 발달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업무 자모의 부자관계에 따라 더 엄격한 문화적 양육패턴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Shin(1996)의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양육실체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김지신과 박성연(1997)의 연구에서 한국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은 애정 합리적 지도와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바, 어머니의 전통적 가치관과 양육행동보다는 아동의 성과 아버지의 교육수준

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덧붙여 Park과 그의 동료들(1997)은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fathering)이 어머니의 양육보다 자녀의 3세 때 억제성을 더 잘 예언하며, 억제성의 하위 특성들을 더 일관되게 예언한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부모의 특성, 부모의 결혼관계등과 함께 아동의 특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내 변인에 속한다(Darling & Steinberg, 1993; Okagaki & Divecha, 1993, Shin, 1996에서 재인용). 추후 연구에서 아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Park과 그의 동료들(1997)은 자녀가 2세와 3세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인 높은 강제성(intrusiveness)과 부정적인 정서반응은 3세 자녀에서의 낮은 억제성을 예언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유아기 때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높게 보인 아동의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부모 양육실체의 영향이 아동의 기질 특성과 같은 개별성에 의해 어떻게 달리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적 철회의 구인을 구별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철회의 하위 유형들이 확인됨으로써 그 구인이 변별되어 연구되고 있다(천희영, 1997). 그 하위 유형 중 특별히 소극적 철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적극적 철회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갈등으로 야기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하위 유형에 따라 적응결과도 달리 예측될 수 있다(Harrist et al, 1997). 그러나 문화 변인을 포함한 사회적 철회 행동과 부모양육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Chen, Dong, & Zhou, 1997; Chen, Rubin, & Li, 1997)은 이같은 사회적 철회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Chen, Rubin, 그리고 Li(1997)의 제안과 함께, 부모 변인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고려해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동 행동의 본질과 그 구체적 특성, 문화와 SES같은 사회생태학적 변인들이 부모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고 나아가 관련 변인간의 중재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부모의 양육 특성이 권위적이든 권위주의적이든,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의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논의하는데 있어, 과연 부모가 자녀의 성격 발달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Harris(1995)의 주장이 주목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했던 Maccoby와 Martin(1983)이 그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이래,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역할 수행이 자녀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유전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가족내 환경 차이(within-family environmental differences)로써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Harris(1995)는 아동발달에 대해 유전과 함께 각각 약 50%의 설명변량을 갖는 비공유된 환경(nonshared environment), 특별히 동료집단의 역할을 중시하는 집단 사회화 이론(group socialization theory)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족외에서의 사회화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부모양육을 통한 가족 경험과 함께 연구하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충분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연구들을 종합했다는 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문화와 사회적 행동 특성에 따라 부모역할 수행과 아동의 적응 결과간의 관계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발달을 돕는 긍정적인 양육방법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온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에 비교하여, 권위주의적 부모역할 수행이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적 문화맥락에서 부모역할 수행과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발달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 시각을 반성해 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권위적 양육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김지신·박성연(1997).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제 18권 1호, 125-142.
- 2) 대한가정학회(편)(1990).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III: 아동학·가족학*. 서울: 교문사.
- 3) 유가효(1995). 한국과 미국의 자녀 양육방식의 비교. 조복희(편), *아동발달의 이해*(pp. 261-386). 서울: 교육과학사
- 4) 정승원·도현심(1997).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 *아동학회지*, 제 18권 2호, 149-161.
- 5) 정옥분·김광웅·김동춘·유가효·윤종희·정현희·최경순·최영희(1997).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아동학회지*, 제 18권 1호, 81-107.
- 6) 천희영(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제 14권 2호, 17-34.
(1997). 아동의 사회적 철회(Social Withdrawal)에 관한 기초 연구: 개념과 측정방법. *아동연구*, 제 6집, 11-24.
- 7) Arcus, D., Gardner, S., & Anderson, C.(1992, April). Infant reactivity, maternal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al profiles. In *Chair Temperament and Environment*.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Infant Studies, Miami, FL.
- 8) Asendorpf, J. B.(1993). Beyond temperament: A two-factorial coping model of the development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265-29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9) Baumrind, D.(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887-906.

-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1968). Authoritarian vs.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Adolescence*, 3, 255-272.
- (1970). Socialization and instrument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26(2), 104-119.
- (197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 Society*, 9(3), 230-276.
- 10) Berndt, T., Cheung, P., Lau, S., Hau, K., & Lew, W.(1993). Perceptions of parenting in mainland China, Taiwan, Hong Kong: Sex differences and societal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56-164.
- 11) Boivin, M., & Hymel, S.(1997). Peer experience and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35-145.
- 12) Booth, C. L., Rose-Krasnor, L., McKinnon, J., & Rubin, K. H.(1994). Predicting social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reschool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style. *Social Development*, 3, 189-204.
- 13) Carter, D., & Middlemiss, W.(1992). The socialization of instrumental competence in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In J. Roopnarine & D. Carter(Eds.), *Parent-child socialization in diverse cultures*(pp. 107-119).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14) Chao, R.(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15) Chen, X., Dong, Q., & Zhou, H.(1997). Authoritative and authoritarian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and school performance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1(4), 855-873.
- 16) Chen, X., Rubin, K. H., & Li, B.(1995). Social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531-539.
- (1997). Maternal acceptance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4), 663-681.
- 17) Chen, X., Rubin, K. H., & Sun, Y.(1992).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 A cross-cultural study. *Child Development*, 63, 1336-1343.
- 18) Choi, S., Kim, U., & Choi, S.(1993). Indigenous analysis of collective representations: A Korean perspective. In U. Kim & J. Berry(Eds.), *Indigenous psychologies: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pp. 193-210).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19) Darling, N., & Steinberg, L.(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77-496.
- 20) Dekovic, M., & Janssens, J.(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21) Dornbusch, S. M., Ritter, P. L., Leiderman, P. H., Roberts, D. F., & Fraleigh, M. J.(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22) Dumas, J. E., LaFreniere, P. J., & Serketich, W. J.(1995). "Balance of power": A transactional analysis of control in mother-child dyads involving socially competent, aggressive, and anxious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1), 104-113.
- 23) Engfer, A.(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A 6-year longitudinal study.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49-8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24) Goodnow, J. J.(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25) Grusec, J. E., Rudy, D., & Martini, T.(1997). Parenting cognitions and child outcomes: An overview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In J. E. Grusec & L. Kuczynski(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pp. 259-282). NY: Wiley.
- 26) Harkness, S., & Super, C. M.(1995). Culture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2, Biology and ecology of parenting*(pp. 211-23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27) Harris, J. R.(1995).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02(3), 458-489.
- 28) Harrist, A. W., Zaia, A. F.,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1997). Shapes of social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Sociometric status and social-cognitive differences across four years. *Child Development*, 68(2), 278-294.
- 29) Hart, C., DeWolf, D., Wozniak, P., & Burts, D.(1992). Maternal and parent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30) Hymel, S., Bowker, A., & Woody, E.(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al unpopular children: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 879-896.
- 31) Julian, T., McKenry, P., & McKelvey, M.(1994). Cultural variations in parenting: Perceptions of Caucasian, African-American, Hispanic, and Asian-American parents. *Family Relations*, 43, 30-37.
- 32) Kagan, J.(1994). Galen's prophecy: Temperament in human nature. NY: Basic Books.
- 33) Kagan, J., Reznick, S., & Snidman, N.(1987).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459-1473.
- 34) Kim, U., & Choi, S.(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pp. 227-25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35) LaFreniere, P., & Dumas, J. E.(1992). A transactional analysis of early childhood anxiety and social withdraw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385-402.
- 36) LeVine, R.(1988). Human parental care: Universal goals, cultural strategies, individual behavior. In R. LeVine, P. Miller, and M. West(Eds.),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pp. 3-1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Inc., Publishers.
- 37) Lin, C., & Fu, V.(1990). A comparison of child-rearing practices among Chinese, immigrant Chinese, and Caucasian-American parents. *Child Development*, 61, 429-433.
- 38) Lytton, H.(1990).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83-697.
- 39)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Series Ed.) & E. M. Hetherington(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1-101). NY: Wiley.
- 40) Masten, A., Coatsworth, J. D., Neemann, J., Gest, S. D., Tellegen, A., & Garnezy, N.(1995). The structure and coherence of competence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1635-1659.
- 41) McGillicuddy-DeLisi, A.(1992). Parents' beliefs and children's personal-social development. In I.

- Sigel, A., McGillicuddy-DeLisi, &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115-14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42) Mills, R., & Rubin, K. H.(1990).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maternal beliefs about children's social behaviors. *Merrill-Palmer Quarterly, 38*(4), 494-512.
- (1993a). Parental ideas as influence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S. Duck(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pp. 98-117).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1993b). Socialization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withdrawal.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117-15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43) Murphy, D.(1992). Constructing the child: Relations between parents' beliefs and child outcomes. *Developmental Review, 12*, 199-232.
- 44)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rnic, K.(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18-227.
- 45) Putallaz, M.(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46) Putallaz, M., & Heflin, A. H.(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7) Rohner, R. P.(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48) Rohner, R. P., & Pettengill, S.(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49) Rubin, K. H. & Asendorpf, J. B.(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Conceptual and definitional issu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3-1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50) Rubin, K. H., Chen, X., & Hymel, S.(1993). Socio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 and withdrawal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9*, 518-534.
- 51) Rubin, K. H., Hymel, S., & Mills, R. S. L.(1989). Sociability and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Stability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57*(2), 237-255.
- 52) Rubin, K. H., Mills, R. S. L.(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4), 419-435.
- 53) Russell, A., & Russell, G.(1996). Positive parenting and boys' and girls' misbehaviour during a home obser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291-308.
- 54)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55) Schneider, B. H., Attili, G., Vermigli, P., & Younger, A.(1997). A comparison of middle class English-Canadian and Italian mothers' beliefs about children's peer-directe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1*(1), 133-154.
- 56) Shin, H.(1993). *Childrearing beliefs and parental efficacy: A comparison study of East Asian and American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 (1996). *Korean-American mothers' self-reported*

- parent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57) Sigel, I.(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345-37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1992). The belief-behavior connection: A resolvable dilemma? In I. Sigel, A. McGillicuddy-DeLisi, &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433-45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58) Steinberg, L., Mounts, N. S., Lamborn, S. D., & Dornbusch, S. M.(1991). Authorit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cross varied ecological nich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19-36.
- 59) Storm, R., Daniels, S., & Park, S.(1986). The adjustment of Korean immigrant famil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6(3), 213-227.
- 60) Super, C., & Harkness, S.(1986). The developmental niche: A conceptualization at the interface of child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545-569.
- 61) Triandis, H.(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Inc.
- 62) Vuchinich, S., Bank, L., & Patterson, G. R.(1992). Parenting, peers, and the stability of antisocial behavior in preadolescent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510-521.
- 63) Whiting, B. B., & Edwards, C. P.(1988). *Children of different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